



삼성 레안드로 VS 현대 루니

“우승 내 손으로”

정규리그 1위 놓고

11일 '자존심 대결'

남자 프로배구의 외국인 선수 레안드로 다 실바(24·삼성화재)와 손 루니(25·현대캐피탈)가 정규리그에서 마지막 자존심 대결을 펼친다.

둘은 오는 11일 낮 2시 현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6라운드 경기에서 챔피언결정전 직행이 보장되는 정규리그 1위 향방을 놓고 맞붙는다.

208cm의 장신 레안드로는 지난 시즌 겨울리그 10연패에 실패한 삼성화재가 현대캐피탈 통합우승 주역인 206cm의 루니의 대항마로 이번 시즌 영입한 '우승 청부사'.

레안드로는 강력한 서브와 스파이크로 삼성화재 공격의 50% 이상을 책임지면서 확실한 해결사로 자리를 잡았고 지난 시즌 최우수선수(MVP) 루니도 현대캐피탈의 2연패를 목표로 고공스파이크를 연일 내리꽂고 있다.

프로배구 최고의 공격수로 꼽히는 둘은 그동안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팽팽한 승부를 펼쳤다.

지난 해 12월 24일 현대캐피탈과 첫 맞대결에서 역대 한 경기 최다인 49점을 쏟아내며 '괴물 용병'이라는 별명을

얻은 레안드로는 3라운드까지 지난 해 여름 비치발리볼 선수로 뛰느라 코트에 적응하지 못한 루니를 압도하면서 삼성화재의 선두 질주를 주도했다.

그러나 4~5라운드에서는 스파이크 위력이 살아난 루니가 50% 안팎의 높은 공격 성공률로 제 기량을 발휘하면서 삼성화재전 3연패 부진을 털고 팀의 2연승을 이끌었다.

이들은 위기에서 믿음직한 해결사로 나서고 있지만 스타일은 다르다.

라이트 레안드로는 브라질 특유의 탄력을 앞세워 백어택 등 큰 공격을 잘하고 대포알 서브의 위력을 뽐내지만 수비가 다소 약한 것이 흠.

반면 한국 배구를 두 시즌째 경험하고 있는 레프트 루니는 시간차, C속공 등 세트 플레이를 잘 소화하고 서브 리시브 등 수비가 탄탄한 게 강점이다.

네트를 사이에 두고 정면승부를 피할 수 없는 만큼 블로킹 대결도 흥미롭다. 루니는 5라운드까지 레안드로의 스파이크를 13개나 잡아냈지만 레안드로는 루니의 공격을 한 차례 밖에 가로막지 못했다.

하지만 레안드로의 블로킹 감각이 시즌 막바지에 살아나 상대 공격의 맥을 끊을 수 있는 가로막기로 '잠신군단' 현대캐피탈을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샤라포바 '사랑의 서브'

'테니스 요정' 마리아 샤라포바가 7일 미국의 비영리기구인 주니어테니스리그와 세이브더볼스가 캘리포니아주 라린타에서 주최한 자선행사 홍보 테니스대회에서 서브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남자군단 멕시코 원정 나선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하와이 시리즈 2개 대회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한 '코리아 군단'이 멕시코 원정에 나선다.

무대는 10일(한국시간)부터 사흘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 있는 보스케 레알골프장(파72·6천901야드)에서 치러지는 마스터카드클래식.

하와이에서 열렸던 SBS오픈과 필즈오픈에 비해 다소 줄어든 32명 가운데 눈여겨 봐야 할 선수는 박지은(28·나이카골프)이다.

박지은·이선화·한희원 등 32명

LPGA 마스터카드클래식 출전

겨울 동안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치료에 전념한 박지은은 하와이 시리즈 2개 대회를 모두 건너 뛰며 복귀를 준비해왔다.

박세리는 빠졌지만 김미현과 작년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이선화(21·J), '출산

휴가'를 앞두고 우승컵을 하나쯤 챙기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한희원(29·라코리아), 그리고 초반 부진을 씻어내겠다는 장정(27·업온행) 등이 시즌 첫 우승 타이프를 끊겠다는 다짐이다.

또 장기간 장타를 앞세워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지영(22·이마트)과 신인왕 레이스 선두 안젤라 박(19), 홍진주(24·K) 등도 주목을 받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서구선수들과 싸우려면 고기·우유 많이 먹어라”

중학자, 축구선수들에 권장

“서구 선수들과 싸우려면 고기와 우유를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중국의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자문역을 맡고 있는 한 학자가 중국 축구 선수들에게 육류 섭취를 권장하자고 이색 제안을 내놓았다.

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과학아카데미의 생물학 박사 장신시는 지난 달 영국에서 발생한 중국 올림픽축구대표팀과 잉글랜드 클럽 퀸스파크레인저스 선수들 사이의 난투극을 예로 들며 경기력보다 '전투력'을 중시했다.

그는 “최근 영국에서 벌어진 사건 동영상을 봤다. 우리 선수들이 곤죽이 되도록 얻어맞더라. 왜 우리 선수들은 성난 황소처럼 강하지 못한가”라고 자문한 뒤 “곡류를 주로 먹는 중국인들의 식습관 때문”이라고 답했다.

전남도체육회 現 체제 유지

박병열 부회장·정건철 처장



전남도체육회가 박병열 상임부회장(55·왼쪽), 정건철 사무처장(61·오른쪽) 현행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전남도체육회는 7일 오전 전남도청 서재 필실(9층)에서 박준영 전남체육회장(도지사)의 주재아래 제231차 이사회를 개최해 박병열 현 상임부회장을 상임부회장으로, 정건철 현 사무처장을 사무처장으로 각각 지명, 임명 동의를 가결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8일(목)

▲06/07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2차전 <맨체스터Utd : 릴>(04 : 30·MBC ESPN)

▲2007 여자프로농구 겨울리그<신세계 : 국민은행>(13 : 50·SBS스포츠)

▲V리그<GS : 현대>(14 : 10·KBS1) <대한항공 : 한국전력>(16 : 00·KBS N SPORTS)

▲프로농구<KTF : KCC>(18 : 50·X-sports)

9일(금)

▲2007 PGA투어 PODS 챔피언십 1R (05 : 00·SBS스포츠·SBS골프)

중국어 학원 프랜차이즈

중국어 학원 프랜차이즈 모집 대상

리플차이나는

리플차이나 中国語学院

www.rifltechina.com

문의전화 02-233-9582

CANADA, SOUTH BAY COLLEGE OF TORONTO

한의대 입학생 모집!

당신도 한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www.southbaycollege.com